

▶ 전북가야금연주단 정기 연주회 '물의 요정', 오늘 소리문화전당서

노을지는 햇살에 금빛으로 반짝이며 흘러가는 강처럼

전북가야금연주단(단장 박희전 교수) 제 16회 정기 연주회가 7일 오후 7시 30분 소리문화의 전당 명인홀에서 열린다.

'물의 요정(The water of sprite)'이라는 타이틀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는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장구 조용안)가 첫 문을 여는데 이 산조는 우조 중심으로 경조, 계면조로 구성되었고 지나친 애조 대신 경쾌한 장단이 많아 현재 전해지는 산조 중 가장 복잡한 리듬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어 두 번째 '달빛 고요한 밤'은 가야금과 바이올린, 신디, 타악 등으로 편곡됐는데 비비질 달빛 아래 고요히 흐르는 만경강의 이별을 가야금 선율과 애절한 판소리, 그리고 다양한 악기로 표현했다.

세 번째 '금빛물결'은 노을지는 햇살에 금빛으로 반짝이며 유유자적 흘러가는 강의 모습을 2현 가야금 3중주의 소리로 노래하는데 끊임 없이 움직이는 아르페지오 패턴이 금빛으로 반짝이는 물결을 표현한다.

네 번째 '새들의 비행'은 몇 대의 가야금이 높은 음의 섬세한 소리를 쇠스틱으로 함께 연주하며 시작되는데 연주자들이 교대로 주선율을 리드하며 연주하다 최종적으로 클라이막스를 함께 연주한다.

총 다섯 마당의 마지막인 '사계'는 만경강의 물길을 따라 펼쳐지는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2현 가야금 합주곡으로 묘사한 작품인데 서정적인 분위기와 재즈리듬, 흥겹



전북가야금연주단 '물의 요정' 포스터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 등 다섯 마당으로 꾸며져

고 자연스런 선율진행은 강물의 흐름과 대지의 호흡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도록 해 끝내 대중적인 소통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 이번 연주회의 대미를 장식한다.

연주회를 마친 박 단장은 "전북가야금 연주단의 정기연주회가 벌써 열여섯 번째를 맞았다"면서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하다 만나 화음을 맞춘 단원들의 기량이 해를 거듭할수록 무르익어 그 어느때보다 관객들에게 수준높은 연주를 들려주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인디밴드 '이상한 계절'

도내 예술인들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소통 프로젝트

전북문화관광재단, '특독 전북문화예술 05'

8일 서학 아트 스페이스에서 진행

(재)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병천)은 올해로 다섯 번째 '예술인 소통 프로젝트, 특독 전북문화예술 05'를 진행한다.

8일 오후 7시 서학예술마을에 위치한 서학 아트 스페이스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북 지역의 문화예술인과 참여를 원하는 도민들이 함께 모여 문화예술 공연을 관람하고 토론을 이어간다.

예술인 소통 프로젝트는 서로 다른 장르 간의 예술가들을 이어주고, 예술로 지역주민과 대중이 친근하게 접근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특히 민간 차원에서 자생적으로 진행되는 소규모 공연의 단절을 막고, 도내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인의 발굴 및 활동 기회를 넓히기 위한 취지다.

행사는 도내 예술인들의 공연으로 시작된다. 현대무용가(황지혜, 하지혜, 송유리)와 인디밴드 '이상한 계절(김은총, 박경재)'이 각자의 개성 넘치는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는 공연자들이 자신의 작품을 직접 소개하고,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서 관객과 더욱 가깝게 호흡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 공연자와 관객들이 함께 토론을 나누며 향후 전북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깊이 있는 대화를 가질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jct.or.kr)로 확인 할 수 있다.

/정해은 기자

▶ 도립국악원 창작 무용 '춤 in Vision'

선은 곱게 동작은 격렬하게



전북도립국악원(원장 신동원) 무용단은 전통 춤의 멋을 다양한 방향으로 재구성하고 동시대에 걸맞은 창작 무용으로 선보인다.

오는 9일 오후 7시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서 펼쳐지는 '춤 in Vision'은 무용단이 지나간 시간들을 반추하고, 그를 통해 전통춤의 새로운 지향성을 모색한다. 이번 공연은 한국 춤의 정체성을 담은 움직임, 그 자체로의 회귀로 구성된다.

첫 무대에선 전북무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된, 우아하면서도 섬세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호남살풀이(최선류)를 만날 수 있다. 이 춤은 맺고 풀어주는 가락에 실어주는 고운선과 휘몰아치는 춤사위가 특징으로, 간결하면서도 시원스럽게 뿌려지는 긴 수건이 인간의 이중적 심리를 대변한다.

이어 기쁜 춤을 바탕으로 허튼가락(비고정 선율)의 음악에 맞춰 즉흥적으로 추는 '입춤(곡수호류)'과 여성적 섬세함과 산조음악에 대한 깊은 해석이 돋보이는 '산조(조용동류)'를 무대에 올린다.

또 전북지역에서 연주되어지는 전라삼현음악에 맞춰 추는 '승무전라삼현승무(문정근류)'도 펼쳐 보인다. 이는 과거승내면에 감춰진 연모의 정과 심리적 갈등을 투박하지만 치밀하고 당차면서도 멋스럽게 승화시킨 춤이다.

곳을 행하는 과정에서 무악 살풀이장단 반주에 추어지는 '수건춤(신관철류)'은 무속의 영향을 받아 기방에서 추어지던 춤으로 한과 애환을 구성지게 풀어낸다.

마지막 무대는 타악의 다양한 가락에 어울러지는 역동적인 춤 '버꾸놀이(서한우류)'로 장식한다. 이 춤은 전남 해안

전통 춤 새로운 지향성 모색 호남살풀이·입춤 등 선보여 공연은 9일 소리문화전당서

(무용단)이 사회를 맡아 한국 춤의 매력과 프로그램을 소개할 예정이다.

공연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국악원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예약제다. 예약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연 당일 현장 좌석을 배부 받을 수 있다. /정해은 기자

소담 민화회, 10일까지 '전통 민화전'

민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소담 민화회가 오는 10일까지 금암 2동 동사무소에서 가을전시회를 갖는다.

전주문화재단의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선 소담 이현숙 작가와 그의 문하생들이 가을 추수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준비한 전통 민화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이제 갓 민화에 입문한 이의 작품부터 일숙미가 느껴지는 작품까지, 지역에서 묵묵히 전통 민화의 맥을 잇고 있는 이들의 열정을 엿보는 동시에 한국인의 정서를 느낄 수 있다.

소담 민화회를 지도하고 있는 이현숙 작가는 "이번 전시회가 누구나 쉽게 민화를 접할 수 있고, 동네 사람들도 마실 나들이 하듯이 편안하게 전통 민화의 참맛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해은 기자

반국가·반사회·반종교는 누구인가

진실을 알립니다!

"반국가·반사회·반종교는 거짓말하는 한기총과 CBS이다."

기독교방송 CBS가 '새 하늘 새 땅(신천지예수교회는) 반국가·반사회·반종교'라고 대한민국 전역과 온 세계에 알렸다. 하나 신천지예수교회는 성경의 약속이자 6,000년 인류 세계 최고의 진리의 성령이요 공의 공동임을 자랑한다.

"반국가·반사회·반종교는 거짓말하는 한기총과 CBS이다."

이 말은 성경 앞에서 시련을 쳐 보아 누가 참이고 누가 거짓인지 알게 될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신천지예수교회를 이단 사이비라고 한 한기총은 부교단에서 교인 수가 급감했으며, 두 개, 세 개로 갈라졌고 서로가 '이단, 살인' 하고 있으며, 한기총 회장직과 목사 안수증도 돈으로 팔고 사고 했다. 또한 조국 통일선언문 비석을 세우는 것도, 대형 손도장 태극기를 만드는 것도, 현충일 행사도, 지원봉사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누가 반국가·반사회·반종교인가?

이 사실은 마귀 신이 들리거나 아니라고 제정신인 자라면 다 알 것이다. 또 한기총의 주류 세력인 정교는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를 짓밟은 일본 정지인의 앞잡이로 친일파가 되어 모든 기독교인들을 선동하여 일본 신에게 절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였다. 이는 신사참배(神社參拜)를 반대하며 가시리 갈라져 나온 고신파가 그 중이었다. 또 쿠데타 정권의 유신헌법 지지 운동도 정교의 거짓 목자들이 선동하였다. 누가 반국가·반사회·반종교인가? 한기총은 거짓말 그만하라.

정교는 말만 만든 고단이며 칼빈교(정교)는 예수가 아니다. 이 정교가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것이 한기총이다. 위의 모든 말이 사실이면, 누가 사이비 이단인가? 거짓말 그만하라.

기독교방송 CBS는 2000년 이상 거짓 방송을 했고, 한기총 소속 목자들은 하나님의 약속한 예언의 말씀을 배격하고 다른 뜻으로 거짓말을 지어 성도들의 마음에 심었다. 마태복음 13장의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눅 8:11) 마귀 씨는 마귀의 거짓말이며, 하나님의 씨로 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거짓말인 마귀의 씨로 난 자는 마귀의 아들이 된다고 하셨다(마 13:37-39 찬). 해서 우리 신천지예수교회(약칭 신천지)는 한기총 목자들이 잘못 알고 잘못 말한 거짓말에 대해 바른 진리로 영성을 만들어 내어보고 있다. 이 영성을 통해 한기총의 2007년 거짓말과 신천지의 참 증거의 말을 들을 수 있다.

http://www.shincheonji.kr/bl_wordCompareMovie

위의 주소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름과 같이, 한기총의 거짓 목자들이 자기들의 불법 행위와 거짓 증거를 감추기 위해 거짓말(계 22:15 참고) 강같이 토하여 모든 국민이 취하도록 받아먹게 했다(계 12:15-16 참고). 하나 신천지예수교회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그 거짓말(선악과)을 받아먹지 않았다. 이들은 또 새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속이려고 투서하러라 생각했다. 하나 참말을 믿는 사람과 거짓말을 믿는 사람 중 누가 복을 받고 누가 저주를 받겠는가? 여려분, 마귀의 씨를 뿌려 마귀 자식을 만든 자들의 죄값이 적다 하겠는가?

누가 참인지 모를 때는 둘 다 불러다가 경서를 기준으로 시험을 쳐 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우리는 저들이 사탄을 속이려고 꾸며낸 거짓된 말도 행동도 한 적이 없다. 성경의 예언도 우리가 기록한 것이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다.

한데 어찌 성경이 약속한 신천지의 목자가 고교인가? 우리 신천지는 인류 6천 년 중 최고의 진리를 가졌다. 우리는 온 세계 중 진리의 빛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가 도래함으로 이전의 거짓말도 끝나고 마귀(용)도 끝나고 거짓 목자도 끝난다.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려고 하셨고, 남의 죄를 용서해야 자기 죄도 용서받겠다고 하셨다. 우리는 인류 최고의 진리를 받았고, 이 진리를 예수님같이 무료로 가르쳐 주고 있다. 또 우리는 비영리 봉사단체로서 최고의 자선봉사를 하고 있다.

누가 거짓말(마귀 씨)을 하고 누가 참말 진리를 말하는지 영성을 보고 판단하라.

우리 신천지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통달한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운 후 시험을 친다. 약 300문제이며, 대다수가 100점에 가깝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한기총 목자들에게 시험을 친다면 20점도 받지 못할 것이다.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씨이다. 누가 참이란 말인가?

부패로 인해 교인 수가 급감되고 있는 한기총이, 금성정교회 있는 신천지를 파하기 위해 거짓말을 지어내어 강같이 쏟아부었다. 이 거짓말은 땅 곧 세상 사람들이 다 받아먹었다. 금강과 금성정의 이유가 있으나, 그것은 부패나, 진리이다. 계시록 20장 12절을 본바, 사탄마다 자기 행위에 따라 책(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심판을 받아 지옥과 천국으로 가게 된다고 하셨다.

거짓 목자들이 세상의 세력을 통해 얻기 위해 거짓말을 정치인들에게 많이 보내 왔으나, 정치인도 종교인도 헌법을 지켜야 할 것이다. 헌법은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편향적 처리로 두 가지 국민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새정치인들에게 기대한다. 대통령님도 이 글을 읽어 보시고 진실을 아시기를 바란다.



유튜브에서 '교리비교'를 검색해보세요.

문의: 063-211-3927

